5장,
왕의 삶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실제로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먼저 제자가 되려는 마음의 준비자세가 되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아도, 결국 어둠과 괴로움만 더해 갈 뿐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왕중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왕이신가 주시해야 합니다.

1. 겸손한 왕

(1) 우리의 죄를 지고 새끼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님께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 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 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보 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 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릅니다. 대적 자들의 본거지를 정면 돌파해 들어가시는 모습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주

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승리의 개선을 할 때에,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기 위하여, 군마를 타고 군대를 동원하며 입성하나, 예수님은 겸손하시어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끼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 안에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려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그의 의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짐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이웃의 죄가 나의 죄인 양 가슴을 쥐어뜯는 겸손한 왕의 모습이 비로소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이니,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 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왕이신 그를 섬길 수 있으며, 그의 곁에서 그를 가까이 섬길 때에 조금씩 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곁에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것은 오직 은혜로 임한 일이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못되는 하나님께서 베푸 신 기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 은 '폐망의 선봉' 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겸손한 왕들(은혜로 왕 노릇 하는 자들)' 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채찍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 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마 21:13)하십니다. 갑자기 겸손한 모습이 없어진 것 같은 채찍을 든 모습으로, 일어서신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을 부르짖으시는 또 역시 겸손한 자의 모습이십니다.

(3)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일은
마땅히 일어나야할 일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이라는 단어는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표현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진정한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올 때,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그 일을 보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보고 분해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 일이 말씀에 있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선포하시는 진정한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 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마태21:16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 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거짓 겸손은 위장된 무서운 교만인 것도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앞에서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일부러 나를 낮추어 점잖게 보이려는 표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때로 채찍을 든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 다른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2. 왕의 선포의 능력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겸손한 왕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인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왕의 선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중 왕으로서의 권세가 임하게 되었고, 그의 권세는 예수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이 기적의 사건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부서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즉 우리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가 오직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자각했을 순간에만 일어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사용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기적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의 공로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선포를 하게 하신 이 약속은 당연히 일어나는 기적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나 단 하나 두려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릇된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3.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구원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써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합 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면 다스리실수록 우주의 왕중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와 왕의 삶을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1) 과거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지나간 시간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아직도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릇되이 결정했던 일들과 사건들로 인해 현재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물론, 잘못하면 과거의 일들로 인해 미래까지도 눌림과 억압 속에 암울한 삶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릇된 과거의 죄성들과 그로 인한 결정들과 그릇된 열매들을 왕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돌아보며, 그 과거의 일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 그를 왕되시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과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혹, 당신이 홀로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과거의 기억들마저도, 당신이 그에게 고백으로 드릴때, 영원한 왕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을 그 사건들과 결과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으시고, 그 일들과 기억들을 왕께 의탁하십시오. 혹, 돌아보시고 살펴보셔서, 그 때의 시간 속에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셨다면 어떠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셔서 그 지나

간 시간들 마저도 왕께 드리십시오. 깊은 치유와 새로움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2) 현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을, 시간을, 또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삶에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의 해야 할 일과, 결정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들어 알수 있으며,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왕의 혜택을 참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하루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할 일을 주십니다. 결정의 방향을 주십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멍하게 진도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 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이기에, 의도적으로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에게 주권을 드리지 아니하면, 자주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이 일은 듣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본 자들만이 알수있는 일이며,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먼저 행할 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나의 오감(Five Senses) 마저도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순종은 훈련이 필요하며, 순종하

면 할수록, 예수님의 왕권에 더욱 예민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 그리고 생각의 범주까지 왕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결정되고, 순종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분별해간다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왕되시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훈련이 되지 않아, 믿음은 이야기 하지만 나의 감 정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해,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 자체가 온전히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게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감정의 시작이나 동기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듣는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육신이 느끼는 모든 세밀한 이유와 방법까지도 그가 주인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감마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수성과 기억의 회복은 물론이고, 나아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하신데로 회복되어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날마다 더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할 것은, 회복된 센스를 도리어 이용하여 자신의 흥취로 살도록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게 하려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끝까지 분별하여 감정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날마다 하면 할수록 강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셔야 하며, 그럴 때에 말씀대로 이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약속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를 훈련하십시오.

더욱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3) 미래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왕' 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우리에게 '오늘의 왕' 이 되셔야만 합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 집어넣어서는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맘대로 정한, 스스로의 기도의 메뉴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여 예수님을 한낱 천국의 웨이터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것입니다.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들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한다하여 믿는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 7:21)하신 왕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일은 예수께서 허락하셔야만 온다는 것을 아는 믿음' 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그가 나의 왕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만일 내일도 허락해 주시면, 또 오늘처럼 그렇게 드리면 되는것 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왕권을 드리고 순종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기 보다는 그 내일도 왕 되신 주께 맡겨버리십시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 6:34)

오늘 온전히 순종하며, 내일에 대한 비전을 구하십시오. 오늘 순종 하는 자에게 내일을 '비전'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축복으로,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삶에 왕 되신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삶 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날' 입니다. 내일이 없는 자 같이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내일' 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니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취하시기 위해 내일을 드리는 삶은, 내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내일을 온전히 드리시면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일의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체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것이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여도 '아직도 차지할 땅은 많도다!' 할 것이며, 축복을 누리고, 누리고, 또 누려도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비좁고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라도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으라' 하면서 결국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인물이 영광을 받게 되거나, 그 열매로 완전히 자유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류의 제자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그 사역이나 특정 인물에게 쏟아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도록 서로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의도에 따라 같은 말이나 완전히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어떤 간증은 듣다보면, '예수 권세, 내 권세'라면서 그 내용이 '내가 금식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하면서 예수의

같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시옵소서!' 그렇다면 내일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왕의 삶으로 부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 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자유케 하기 보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 아주 무서운 상태에 있는 분들 이계십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있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만 치중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만 촛점을 맞춘다면 거짓 종교인 만들기 딱 좋을수 있습니다.

서로 분별하여 이상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듯 '왕의 삶' 이란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이며,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출 때, 그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